

제주유도 간판 남녕고 올해도 '맹위' 전망

프로배구 1위 매직넘버는...

대한항공 승점 5, 흥국생명 6... 2승 거두면 경쟁 끝

2023 홍콩 국제유도대회 4명 출전 금3·동1 획득
최강 오상우·이현지 견재... 김세림·고지운 가세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는 제주유도가 올해도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남녕고의 활약에 힘입어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시즌 첫 국제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기 때문이다.

6일 제주도유도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3 홍콩 국제유도대회에 남녕고는 김세림과 오상우(이상 3), 고지운(2), 이현지(1)가 출전했다.

고등학생들 중 각체급 별로 1명씩 출전하는 대회에서 남녕고 4명이 선발된 가운데 3명이 금메달을, 1명은 동메달을 따냈다.

-90kg급의 김세림은 1회전과 준결승전을 누르고와 발다리 후리기로 한판승을 따낸 뒤 결승전에서도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세림은 지난해 꾸준히 기량을 쌓으면서 올 시즌을 대비한 상태여서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60kg급의 오상우도 허리후리기와 허벅다리로 결승전에 진출한 뒤 또다시 허벅다리로 정상에 올랐다. 오상우는 지난해 양구평화컵전국 유도대회 동메달을 비롯 청풍기전 국유도대회 금, 전국체육대회 금(55kg), 제주컵 금메달 등 2학년이면서도 모든 대회에서 정상급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남녕고에 진학한 '무적' 이현지 역시 고교 데뷔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확실한 신고식을 치



아래 왼쪽부터 문경철 제주도청감독, 문원배 대한유도회심의위원장, 김세림, 이현지, 강만순 제주유도회 회장, 김희철 도유도회 부회장, 유국상 대한유도회 부회장, 위 왼쪽 오상우, 고지운, 홍다미 등남초지도사, 한순남 대한유도회상임심판.

렀다. +78kg급의 이현지는 말레이시아 선수를 맞아 허리채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따내 결승전에 나섰다. 결승전 상대는 마카오 선수. 역시 이현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현지는 허리채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으로 결승무대에 올랐다.

-73kg급의 고지운은 첫경기에서

상대에게 한판으로 패했지만 패자전에서 잇따라 한판승을 거두며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새로운 진용의 남녕고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예정인 2023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올 시즌 데뷔전을 갖게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치열했던 프로배구 2022-2023 V리그 정규리그 1위 경쟁의 승자가 남자부 대한항공, 여자부 흥국생명으로 결정되는 분위기다.

두 팀 모두 정규리그 1위 결정을 위한 매직넘버를 쥐고 있다.

대한항공은 승점 5, 흥국생명은 승점 6을 얻으면 '현대 남매' 현대캐피탈(남자부), 현대건설(여자부)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다.

V리그는 세트 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기면 승점 3, 3-2로 승리하면 승점 2, 2-3으로 패하면 승점 1을 얻는다.

대한항공과 흥국생명이 2승을 거두면, 사실상 1위 경쟁이 끝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승했다.

양 팀 사령탑 모두 5일 맞대결을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밝혔고, 실제 이 경기 승리로 대한항공은 1위 경쟁에서 크게 앞섰다.

대한항공은 승점 71(24승 9패)로, 승점 66(22승 11패)의 현대캐피탈과의 격차를 벌렸다.

두 팀 모두 정규리그 3경기를 남긴 터라, 승점 5의 격차는 현대캐피탈에 큰 부담을 안긴다.

16일 우리카드, 19일 삼성화재와 차례대로 맞붙는다.

여자부 1위 흥국생명은 승점 73(24승 8패), 2위 현대건설은 승점 69(24승 9패)를 쌓았다. 흥국생명이 한 경기를 덜 치른 터라, 실제 격차는 더 크다.

흥국생명은 7일 한국도로공사, 11일 KGC인삼공사, 15일 IBK기업은행과 맞붙은 뒤 19일 현대건설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흥국생명의 리더 김연경은 "현대건설과 경기를 치르기 전에 1위를 확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오사카돔에서 열린 WBC 한국 대표팀과 일본 오릭스와의 연습경기. 한국 김광현이 2회말 교체 투입돼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WBC 대표팀 2실책 '플랜B' 흔들

첫 공식 연습경기서 오릭스에 2-4 패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첫 공식 연습경기에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어렵게 패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6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내야수들의 잇따른 실책 속에 2-4로 패했다.

WBC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연습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하며 문제점을 검토하게 됐다.

실책 3개를 저지른 대표팀은 10안타를 쳤지만 2득점에 그치며 공격의 응집력도 부족했다.

주전 3루수인 최정(SSG 랜더스)의 몸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3루를 맡고 유격수로는 오지환이 투입되는 '플랜B'를 가동했다.

마운드에는 소흥준(KT 위즈)을 선발로 내세운 대표팀은 경기 초반 오지환이 예상치 못한 연속 실책을

저질러 분위기가 무너졌다.

이강철 감독은 0-2로 뒤진 1사 1, 2루에서 김광현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김광현은 노구치에게 중전안타를 맞아 0-3으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6회까지 6안타를 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대표팀은 6회말 수비에서 최정을 3루수로 기용하고 김하성은 유격수로 돌려 '플랜A'를 가동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투수 정철원이 2안타를 맞아 2사 1, 3루에서 이케다의 땅볼을 김하성이 놓쳐 다시 1실점 하면서 0-4가 됐다.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는 이정후와 박해민의 안타로 1사 2, 3루에서 대타 박건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1점을 만회했다.

계속된 1사 1, 3루에서 이지영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를 날려 2-4로 추격했으나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김단비, 이적 첫해 가장 빛난 별로 '반짝'

정규리그 MVP 등 5관왕... 신인상 박소희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포워드 김단비(33·180cm)가 2022-2023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김단비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110표 가운데 107표를 얻어 이번 시즌 가장 빛난 별로 뽑혔다.

2007-2008시즌부터 신한은행에 서만 된 김단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우리은행으로 이적했고, 팀을 옮긴 첫 해에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MVP 영예를 안았다.

김단비가 정규리그 MVP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리그 30경기에서 김단비는 17.2점(2위)을 넣고 8.8리바운드(5위), 6.1어시스트(2위)를 기록했

다. 블록상 1.3개로 1위를 차지했고, 개인 기록을 수치로 환산한 공헌도 부문에서는 1057점으로 역시 1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김단비의 활약을 앞세워 25승 5패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김단비는 MVP 외에 윤덕주상(최고 공헌도), 베스트 5, 우수 수비 선수상, 블록상 등 5관왕에 올랐다.

김단비는 이날 MVP 상금 500만원과 윤덕주상 300만원, 베스트 5와 우수 수비선수, 블록상 100만원씩을 더해 상금 1100만원을 받았다.

MVP를 받은 김단비는 "이 상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는데 너무 기쁘다"며 "16년 전에 숯 하나 제대로 못 소고, 수비도 뭣지 몰랐던 선수를 에이스로 만들어주신 위성우 감독님께 감사 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전통의 산호당구재료상사

오랜 세월 제주에서 당구 용품을 공급하며 당구장 업주 여러분과 당구 동호인과 함께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렴하고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구장 업소 전문목을 인터넷 가격이하 판매 다양한 개인용품을 구비 전시 판매하며 필요시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 한밭규 · 빌킹규
고리나규 · 은성 규 · 코리아규
기타 제품 및 수입 용품

**시모니스, 고리나, 타키니,
제니스 등 대대 천 상시 공급**

큐 수리 공방 운영

상하대 바란스, 선골수리, 팀 부착 및 기타

**1회성 뜨내기 기사가 아닌 20년 이상
경력의 기사가 상주 하여 당구대 작업을 합니다**

개인용품

개인용 팀(쿠드롱 킹블랙 양크 고리나 산체스 한밭 애이볼 아우라 에디맥스 아마도 몰리나리 전뎀 후지 까유이 등)
개인 초크(고리나 DS 아우라 명품 아라미스 프레데트 블루마운틴 킨다리아몬드 프로페셔널 등)
장갑(김치 쿠드롱 한밭 아우라 고리나 최성원 명품 등)
기타 그림 출판 초크케이스 등 다양한 개인용품 구비 판매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757-5710, 5488 H·P. 010-3699-3967